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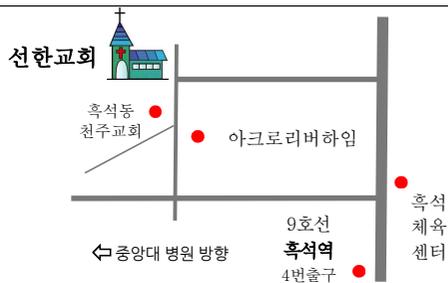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 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 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희 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유 신 웅, 조 윤 익		
	박 영 근,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고린도전서 11:2)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5장 (통일찬송가 25장)

교 독 문 교독문 29 (시편 65편)

찬 양 과 경 배 218장 (통일찬송가 369장)

기 도 윤희중 장로

말 씬 봉 독 고린도전서 11장 17 ~ 26절

설 교 **성만찬식 문제**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지혜로운 자의 30가지 습관 6 (잠24:17-22)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 8월 8일 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1. 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1시에 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2. 주중예배: 금요기도회 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3차):
이번주 범위 (에스겔 32장 ~ 호세아 14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아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4. 유 초 등 부
여 름 성 경 학 교**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7월 11일 ~ 8월 1일 까지 4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장 년 부 하 계
수 련 회**

장년부 수련회가 8월 27일 (금) ~ 29일 진행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시 32:6)

**한주간의
기도제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예배가 회복 되도록

찬송 : '어둔 죄악 길에서' 523장(통 262)

본문 : 마태복음 9장 9~13절

말씀 :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습니다. 이 기간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가지였지만, 그중에서도 12명의 제자를 양육한 일이 소중합니다. 3년 동안 제자를 양육해 교회의 미래를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후 교회 공동체는 2000여년 동안 부흥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육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지 않았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었을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어떻게 뽑았을까요.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기에 예수님은 충분히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며 세웠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마태를 뽑는 과정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우지 못한 어부여도 그들의 열심을 보고 뽑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민족 반역자로 유대인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죠.

마태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참석한 게 아니라 마태의 다른 손님도 있었죠.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그 손님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태가 그들을 초대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거절했어야지. 마태가 그런 부도덕한 친구들을 불렀다 해도 예수님이 거절했어야지. 그런 파티였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다면 자리를 구분해서 따로 앉았어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말을 섞을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들과 음식을 나누며 잔치를 즐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이죠. 묵상할수록 깊은 뜻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일까요. 누가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큼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금식과 기도, 구제와 많은 십일조를 드린 바리새인들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며 많이 쓰는 서기관들일까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아니다. 난 아직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나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 그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그의 죄를 씻어 줄 테니까”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거나, 아니면 의인이거나.

제목

성만찬식 문제 (고전11:17-26)

서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1. 성만찬식의 의미와 문제해결

- (1) 고린도교회의 문제: 자신의 만찬을 먼저 먹고 성찬을 시행함(20-21절)
- (2) 바울의 책망: '너희가 먹고 마실 겁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22절)
- (3) 바울의 권면: ①성찬식은 주님의 몸과 피로 새운 새 언약이므로 주님을 기념해야 한다(24,25절)
②주의 죽으심을 오실때까지 전하는 것이다(26절)
③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잘 살피라(27-29절)
④먹으러 모일때에 서로 기다리라(33절)

본론

2. 교훈

- (1) 주님이 명하신 성찬식이 왜 분쟁의 도구가 되었는가?
- (2) 어떻게 성찬식을 시행해야 하는가?
- (3)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분쟁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결론

주님의 일을 분쟁없이 감사함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윤호중 장로

박영근 장로

매일 Q.T.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	날짜 : 8월 2일
찬양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본문	빌레몬서 1:15-25		
말씀요약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를 이제부터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기를 요청합니다. 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자신이 갚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숙소를 마련해 줄 것과 그들의 기도로 그들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상질문 1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으라 1:15-19 바울은 빌레몬이 그의 종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길 바랐나요? 내가 이해와 관용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지체는 누구인가요?		
목상질문 2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삶 1:20-25 빌레몬의 순종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어느 정도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어떤 면에서 헌신된 사랑과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한절묵상	빌레몬서 1장 16,19절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관계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제도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 관계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영적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지만(19절) 동역자로서 서로 존중합니다. 바울과 마가·아리스다고·데마·누가 등은 스승과 제자 관계지만, 바울은 그들을 동역자로 여깁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동역자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주님!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제 연약함을 긍휼이 여겨 주소서. 모두의 참주인이신 주님이 어려운 관계와 상황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저와 공동체가 서로 용납하고 책임지고 세워 주는 사랑에 헌신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찬양과 기도	예수 따라가며 (새 449, F) 완전하신 나의 주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 영국에 고아원과 성경학교를 세워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산 기도의 사람 조지 뮐러(George Mueller)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섯 가지 단계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자기 의사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 두 번째, 결과에 대해 개인의 감정 혹은 이상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세 번째,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지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것, 네 번째, 상황을 자세히 고려해 살피고 말씀과 성령이 연결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다섯 번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뜻을 보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여섯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묵상을 통해 심사숙고 끝에 도달한 결론에 따라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 설교가 조지 트루엣(George Truett)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 나누기		사사기 1:1~10	
목상포인트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행위는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그분의 의견을 듣고 내 뜻과 비교해 어느 것이 나은지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뜻만이 온전함을 고백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하나님은 가장 먼저 어느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도록 명령하셨나요?(1~2절)		
적용하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뜻을 구하나요, 나의 판단대로 결정하나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일을 진행한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전심을 다해 따르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는 코람데오(Coram Deo)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기도			

매일 Q.T.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다음 세대	날짜 : 8월 6일
찬양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본문	사사기 2:1-10		
말씀요약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그 땅 주민이 그들의 가시와 울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백성이 소리 높여 읍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목상질문 1	여호와와 사자의 경고 2:1-5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새로운 세대의 등장 2:6-10 여호수아 세대와 그 이후 세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나요? 내가 다음 세대에 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사기 2장 7,10절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신앙의 선택을 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생한 신앙의 삶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탱하게 합니다. “꽃을 자라게 하는 건 천둥이 아니라 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야단과 잔소리가 아닌 은혜의 단비, 말씀의 단비에 흠뻑 젖도록 양육 하십시오.		
적용			
오늘의 기도	가정과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가시에 찢리고 우상의 울무에 갇히기 전에,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심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기쁘이고 소망이게 하소서.		

매일 Q.T.		형통한 사명 성취,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날짜 : 8월 3일
찬양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본문	사사기 1:1-10		
말씀요약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 묻 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다를 지목하십니다. 유다가 시므온에게 함께 싸우자 고 제안하니, 시므온이 유다와 함께 갑니다. 유다는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을 무찌르고, 도망하는 아도니 베섹을 잡아 예루살렘에서 죽입니다.		
목상질문 1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동역 1:1-4 유다 지파가 남은 땅 정복을 위해 시므온 지파의 도움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 까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내가 동역자로 삼을 사람은 누구인가요?		
목상질문 2	예루살렘과 헤브론 정복 1:5-10 아도니 베섹의 고백(7절)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공 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사기 1장 1-2절 선두에 서는 일은 늘 용기가 필요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유다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 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상대적입니다. 굶주린 사자를 혼자 만나면 당연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완전무장한 군인 100명이 함께하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싸움도 넉넉히 이깁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오늘도 저와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이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 니다.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맡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저함 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동역이 서 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소서.		

매일 Q.T.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날짜 : 8월 4일
찬양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본문	사사기 1:11-21		
말씀요약	갈렙은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웃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유다는 철 병기가 있는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하고, 베냐민은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 그들과 함께 거주합니다.		
목상질문 1	웃니엘을 통한 드빌 정복 1:11-15 악사의 믿음은 어떤 면에서 아버지 갈렙을 닮았나요?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실패담 1:16-21 유다 지파가 골짜기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축된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용기를 낼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사기 1장 14-15절 '남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게브'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황무지는 물이 부족해 사람이 살기 어렵습니다. 악사는 아버지에게 샘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척박한 땅을 주었으니 샘물도 주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아버지의 담대함이 딸에게서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황무지 같은 곳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고 복을 구하십시오. 황무지로 보내실 때는 샘물도 주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두려움을 더 크게 생각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가장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죄악을 철저히 몰아내며 순종의 행보를 이어 가게 하소서.		

매일 Q.T.		반쪽 순종, 반쪽 성공	날짜 : 8월 5일
찬양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본문	사사기 1:22-36		
말씀요약	요셉 가문은 벤엘(루스)을 정복할 때 성읍 입구를 알려 준 사람과 그 가족을 살려 줍니다. 그 사람은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짓고 그 이름을 루스라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강정한 후에야 그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목상질문 1	요셉 지파의 벤엘 점령 1:22-26 요셉 지파의 벤엘 점령과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정복(수 2:1-14)에서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반쪽짜리 성공에 머물지 않도록 살필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북쪽 지파드의 점진적인 실패 1:27-36 북쪽 지파들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작은 타협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절묵상	사사기 1장 24절 명령을 어기고 얻은 승리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요셉 지파는 벤엘(루스)로 올라가는 길을 알아내기 위해 그곳에 속한 한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는 눈앞의 승리를 담보 삼아 미래의 평안을 저당 잡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헷 사람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멸한 루스를 다시 세웁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임기응변이나 재치가 아닌, 하나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했던 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작게 내어 준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제 전부를 삼키는 죄악의 속성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내기 위해 욕심을 내려놓고 생명을 드리게 하소서.		